연합뉴스

DMZ·한강 하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송고시간 | 2021-06-18 17:18

경기도, 시·군 등과 민·관 협의체 구성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8일 비무장지대(DMZ) 일대와 한강 하구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 도의회, 민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강 하구 장항습지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은 파주 DMZ 일원과 고양·김포 한강 하구로, 6·25 전쟁 이후 자연 생태계 스스로 복원하는 과정을 증명한 세계 생태계의 보고이자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경기도는 20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진강·한탄강 일대와 연계해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 생태 축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역 개발을 막던 각종 규제를 넘어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인지도 상승, 생태관광, 지역 생산물 마케팅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때까지 운영한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필요할 때 수시회의를 열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할 계획이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18 17:1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